장흥 바이오산단 축산물가공센터 주민 반발

600억원 들여 내달 착공
악취, 오·폐수 유출 우려
플래카드 걸고 반대 집회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내 도축 기능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종합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하고 있다.

자칫 축산물가공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장흥군이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 해당바이오산업단지 내 부지(42000㎡)에 6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축산물가공종합센터를 유치, 다음달 착공에 들어간다.

장흥군은 지난 5월 광주지역 업체와 협약을 체결, 내년 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하루 도축장을 이용하는 소·돼지만 100여마리에 달하고 380여명의 인력 창출도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장흥군은 기대하고 있다.

산단 인근 장흥읍 월평리 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소·돼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비롯, 오·폐수의 농경지 유입 등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산단 내 가동중인 오리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고통스러운데 도축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훨씬 더 정주 여건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은 마을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군청을 찾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군은 선진 공법을 도입해 악취를 최소화하고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한편, 도축과정도 기존 방식과 달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축산 오폐·수 처리 방식도 환경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축산물센터가 들어서는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칫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장흥군이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산물가공종합센터 유치 관련 설명회가 열릴 예정으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 지 주목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까치 아니네…홍시 맛보는 직박구리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도 어른들은 까치밥이라며 홍시를 남겨놓았다. 배고픈 까치가 날아와 요기하라는 마음에서다. 23일 까치 대신 직박구리가 강진군 강진읍 마당 감나무를 찾아 남겨놓은 홍시를 맛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겨울철 별미 장흥 매생이 사계절 즐긴다

대덕 신리마을에 가공공장 준공
1000여t 가공저장 1년 내내 공급

장흥 별미인 매생이를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문을 열었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마을에서 정남진 장흥매생이 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매생이 가공공장은 1230㎡의 규모로 18억원이 투입됐다. 냉동 매생이와 동결 건조 매생이 등 연간 1000여t의 매생이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게 장흥군 설명이다.

겨울철에 수확한 매생이는 4단계의 세척시스템과 2단계의 선별 과정을 거쳐 급속냉동된 후 상품으로 포장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정해역에서 자란 매생이 가공공장 설립으로 수산물 명품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면서 " 매생이 가공공장 신축을 시작으로 지역 수산물 가공 사업분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최근 준공한 매생이 가공공장에서 직원들이 매생이를 세척, 선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강진군 대상자 아닌 21명에 의류 상품권

전남도 감사 적발…1786만원 어치, 대부분 광주서 사용

강진군 일부 직원들의 등산복 구입 행태가 전남도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규정대로 구입하기는 커녕, 대상자가 아닌데도 의류 구입비를 주는가 하면 지역 상가가 아닌, 타 지역까지 가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강진사랑상품권 활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강진군에 대한 종합감를 벌여 33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주의조치 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의 문제 뿐 아니라 피복비 구입 행태까지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눈총을 샀다.

강진군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규정을 무시하고 광주지역 스포츠 의류용품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의류 구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의류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21명에게 178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 지급하는 '선심'을 쓰는가 하면, 구매 기준·실태 파악도 없이 지급하면서 하루에만 동일한 의류 구매 상품권을 두 차례 받는 직원까지 생겼다는 게 전남도 감사 내용이다.

강진군 안팎에서는 의류 구매 장소도 지역 상가 대신 광주까지 가서 구매할 필요가 있었는지, 재정이 어렵다면서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게도 마음껏 지급할 돈은 있는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슬로시티 재가입 추진

2013년 재인증서 탈락…관광·이미지 부정적 영향
내년 하반기 신청 목표 권역별 콘텐츠 개발 등 나서

장흥군이 지난 2013년 탈락했던 국제슬로시티 재가입을 추진중이다. 장흥군은 내년 하반기 재가입 신청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기존 자격 상실 사유를 파악하고 재추진을 위한 절차·보안 방안 등을 자문받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부산에 위치한 한국슬로시티본부 부산분사를 방문, 국제 슬로시티 재가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됐지만 5년 뒤 이뤄진 재인증 평가(6개 분야 52개 항목)에서 탈락했다.

당시 주요 실적 증명 자료가 미흡했고 전담부서가 없는 점, 지역민, 청소년 등에 대한 슬로시티 교육 미흡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건물 등 하드웨어 기본 구축 분야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흥의 탈락으로 해당 지역 내 '슬로시티 마케팅' 뿐 아니라 이미지 훼손도 적지 않는 등 관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흥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재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장흥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군은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 재인증 신청을 목표로 권역별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슬로시티 연관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내 슬로시티는 완도 청산, 담양 창평, 신안 증도 등 모두 13곳이며 올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국 235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 방문의 해·전남체전 대비 도시 가꾸기

郡 내년 예산 60억원 투입

영암이 내년 영암 방문의 해와 제 57회 전남체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60억을 들여 도시 가꾸기에 나선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3674억원) 보다 270억원(7.35%) 증가한 394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3210억원) 보다 32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지난해(464억원)보다 51억원이 줄어든 41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영암방문의 해와 영암에서 열리는 제 57회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물 정비 등 도시 가꾸기로 60억원을 투입해 도시 이미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영암군은 열악한 형편에도, 지역민들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9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어르신들을 이·미용권과 100원 택시·1000원 버스 운영 등을 위해 893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한다. /영암=전봉헌기자 jbh@